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개발공사,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공사 대강당에서 160여 명의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목표인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 조직문화를 통해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청렴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진=도시개발공사 제공)

경북도, 갑진년 수출 목표 500억달러...

2024 경북도 통상확대 전략 3000여 개 기업 112억 지원

경북도의 올해 수출 목표액은 500억 달러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 관련 품목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했다. 올해는 우리 기업의 대내외적 무역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4 경북도 통상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전략은 △해외 진출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시장 개척 △온라인 기반 수출 확대 △수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 안정화 유도 △국내외 수출기관과의 협사

업등이다. 도는 총 3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에 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 수요 대응을 위해 전사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상품전 운영 등 권역별 품목별 맞춤형 시장개척 사업을 총 27회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과 소비재 진출을 위해 2월 하순부터 동남아, 베트남, 중국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홍콩, 광저우, 필리핀 등 해외 전시상품전에 참가한다. 2차전지, 소재부품, 화장품 진출을 위해 뮌헨 배터리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전 참가를 지원하고 일본 소부장 및 유류 부티 무역사절단도 파견한다. 2대 수출시장인 미국에는 LA한국상품전과 화장품

전문전시회(코스모프로프) 참가, 미래차 무역사절단 등도 운영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에 행정력을 모은다. 올해는 미국 윌마트와 러시아 이솜 등 10개국 7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14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홍보 판매와 배송을 지원한다. 구미상공회의소에 설치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xter)에는 수출제품 홍보 사진과 외국어 동영상 촬영해 해외구매자와의 수출 상담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한국 대표 글로벌 온라인전시장인 바이코리아에도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를 입점시켜 1:1 화상 수출 상

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비용 절감'을 위해선 업체별 연간 한도 수출물류비 1000만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비 부스임차 및 장치비 1000만원, 수출종합패키지 1000만원, 수출보험 400만원, 해외인증 600만원, 국제특송(EMS) 400만원, 해외출장 비용 200만원, 중소기업 통·번역과 해외시장 조사에 각각 1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미국 H마트를 활용한 상설판매장 운영과 중소기업 인직원 무역실무교육도 한다.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를 포함해 해외 6개국에 파견한 경북도 해외통상사무소는 주도적으로 경북상품수출 확대에 나선다. 김성용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 단장 임정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일 오전 영광에서 열리는 영광여자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대구시, 국회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처리해라

수도권 일극주의 족쇄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 성사 흥준표 등 14개 자치단체장 공동명의 양당 건의서 전달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를 건의드린다. 흥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이다. 3일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달

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흥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이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현정상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 아파트 경매 물건 급증...



대구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급증한 가운데 입찰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공매 정보를 제공하는 '뱅크옥션'이 3일 발표한 전국 법원의 경매물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아파트 총 경매건수는 1637건으로 전년(968건) 대비 69.1% 증가했다. 1637건 중 511건이 매각돼 낙찰률(매각건율)은 31.22%로 전년(30.17%) 대비 1.05%p 높았고, 평균 매각가는 3억6956만원으로 전년 대비 7.63%p(2622만원) 상승했다. 입찰경쟁도 치열해 경쟁률이 전년(5.53명)보다 높은 7.13명이었다. 이는 세종(11.64명), 경기(10.55명), 대전(9.27명), 인천(9.08명)에 이어 전국 다섯번째다. 그러나 연간 매각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76.03%로 전년(83.49%)보다 7.46%p 떨어졌다.

용혜인, 흥준표와 '퀴어축제 설전'



김진열 군위군수는 3일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 군위군수와 함께 하는 초잔간담회를 가졌다.

뉘전국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3일 대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용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대구 엑스코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인 그는 지난 연말부터 전국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용 의원은 "대구 의정보고회를 통해 21대 의정 활동과 함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는 오히려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는 흥준표 대구시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적법성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의정보고회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지냈고 용 의원이 제안한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김병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지영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송필경 전 기본소득당 정책포럼 대표도 자리했다.

202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갑진년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Includes logos for Chilgok-gun and various scenic images of the region.



칠곡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칠곡군이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한 칠곡을 만드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는 청렴제도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으로 구성된 청렴노력도를 종합해 1

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한다. 칠곡군은 청렴제감도 부분에서 3등급,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2022년 4등급에서 2계단 올랐다. 청렴추진단 구성, 청렴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다. 정희우 기자

DGB대구은행, 갑진년 새해맞이 출발...임직원 봉사활동

명절맞이 선물세트 취약계층 전달 새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시

DGB대구은행은 새해를 맞아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신년 첫 업무일 전국 본부별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3일 DGB대구은행은 따르던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대구의 4개 본부 및 경북 2개 본부, 부울경, 수도권 본부 등 전국 8개의 지역 본부에 걸쳐 전행적으로 진행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장애인 대

상 재활운동기구 지원, 지역 어린이 보은 의류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으로 실시됐다.

황병우 은행장은 북구지역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해 및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선물세트는 쌀과 떡국떡, 즉석국과 과일 등 부식품으로 구성돼 연초 및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봉사활동은 새해 새롭게 선임된 지역본부장들이 새해의 첫 대외 활동을 지역 사회공헌활동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를 담았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실무 작업 착수로 고객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새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도 동시에 실시해 비금융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종합적인 따뜻한 금융을 통해 은행과 고객, 지역의 상생을 위해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명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통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무료 컨설팅과 사회공헌 등 비금융 지원을 함께 통합 지원에 적극적인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윤, 신년인사회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테러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 대표 패유를 기원했다.

임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 대표 패유를 언급했다.

이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다 함께 기원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5부 요인과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시민 등 참석자들에게 신년 인사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건배의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신년 덕담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년 다짐을 발표했다.

신년인사회에는 5부요인(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흉기 피습으로 임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윤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대면해 악수를 나눴다.

국민을 대표해서는 급발진 확인장치를 발명해 대통령상을 받은 국지성 군, 여의도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응급처치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 합정역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강태권 육군 대위 3인이 참석했다.

종교계에서는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큰스님, 정순택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등이 자리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광주 방문 앞둔 한동훈, 이 피습에 신변 보호 비상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신변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범이 체포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3일 여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20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을 참배하고, 오전 11시부터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 시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한 위원장이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외연확장을 위한 것으로, 한 위원장이 광주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방문에서 한 위원장의 신변 보호도 관심사다.

전날(2일) 이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했고, 이날 광주 광안경찰서가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을 이날 긴급 체포하면서 신변 보호 중요성은 커졌다.

과거 보수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했다가 현지 진보단체들의 항의와 반발에 직면하거나 2015년 김부성 새누리당 대표,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정당 대표들이 물세례를 받은 것도 신변보호 중요성을 높이는 이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가적으로 경찰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없다"며 "경찰 차원에서 경호가 강화된 것 같다. 어제 사고 이후 경호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경찰 내부적으로 정리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10 총선 윤두현·최경환 '구애 경쟁'

윤, 신년인사회 "국힘 응원" 호소 최 전 부총리는 참석 사실만 소개

경산시 4·10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3일 열린 경산시 신년인사회에서 참석한 각계 인사들을 향해 '구애 경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각각 사전에 행사장을 돌며 참석자들에게 악수 세례와 스킨십으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행사장을 돌다가 만난 두 사람은 의례적인 악수만 건넸을 뿐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경산상공회의소는 윤 의원에겐 새해 인사말 기회를 준 반면 최 전 부총리는 인사말은커녕 참석한 여러 인사들을 거명하면서 "전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고만 알렸다.

경산상공회의소 측은 "행사 관례에 따라 윤

의원은 현직이어서 인사말 기회를 줬고 전직은 배제했다"며 "최 전 부총리측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현일 경산시장과 윤두현 의원은 각자 인사말을 하면서 이날 참석한 경산 출신인 경북도 산하 단체의 일부 단체장들을 호명하며 친근감과 유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과 경산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위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많이 응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국회 제17대부터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최 전 부총리로서는 이날 신년인사회는 정치적 격세지감을 실감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다.

행사 도중에 자리를 뜬 최 전 부총리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언제 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은 기자

대구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국비 15억 확보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시장 대표상품 개발 개척



대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관문상가시장 등 34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이 선정된 탓이다.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달서구 월배·월배신시장

과 남구 관문상가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2년간 8억 6000만 원 사업비를 받는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육성 과 시장 대표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추진하게 된다.

북구 칠성본시장과 수성구 태백시장 등 2곳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 개별 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도록 개별 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화재감시용 CCTV 설치에 5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북구 칠성진경명시장, 수성구 지산목련시장, 중구 염매시장 등 3곳은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배선 및 배관, 전선, 콘센트 교체 등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 우수시장 상품과 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지원과 지역 개별 상인회가 직접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시장교육,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지역 시장 26곳이 선정됐다.

10억 8000만 원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역량을 강화한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올해 선정된 중기부 공모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구·군 및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사회 교육

대구광역시

2024년 1월 4일 목요일 3

강은희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 만들 것”

책임·기본·공동체 ABC 전략추진 ‘학교 교육’ ‘성공 효과’ 극대화



대구교육청이 2024년 대구교육 ABC 전략과 주요 정책을 마련했다. 강은희(사진) 대구교육감은 3일 대구교육청 여민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구교육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교육정책 목표를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로 설정해 IB 수업 경험과 미래학교 모델을 통한 학생이 주체적 학습자가 돼 협력적 배움이 이뤄지는 좋은 교육, 교육 주체들 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적 관계가 구축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제시했다.

대구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교육공동체가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를 지향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성공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교육감은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책임(Accountability)을 다하며 기본(Basics)에 충실하고 공동체(Community) 회복을 이루는 2024 대구교육 ABC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2024 대구교육 ABC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지원으로 격차 없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책임교육, 기본교육, 공동체교육 등을 실시한다.

대구교육청은 책임(Accountability) 교육을 위해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느린 학습자 전문적 지원,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학년제 시행, 한국어교육센터를 신설한다.

다문화학생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몸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체 활동을 담은 몸교과서를 보급 후 모든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립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성장 중심 개별

화교육(IEP) 운영 및 장애학생 맞춤형 체협교육을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 확대·운영하고 어린이집 연수 및 컨설팅 강화, 수요와 여건을 고려, 교육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구교육청은 기본(Basics)으로 돌아가 교육 본질을 더욱 깊이 추구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IB 학교 수를 장기적으로 전체 학교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려 IB프로그램 수업 경험의 내재화, 대구미래학교 질적 성장으로 수업중심 학교 문화 확산, 인구교육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실시 등에 나선다.

2022교육과정 안착으로 대한민국 미래교육 과정 선도, AI 교육지원센터를 신설 후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 미래학교추진단을 설치해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 학교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구교육청은 모두 다·행복한 학교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Community) 회복 교육도 진행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이 존중받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권 보장,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해 마음교육 선도학교 확대 및 마음 교과서 보급에 앞장선다.

긍정적 학교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 지속 및 학부모 교육 강화,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및 업무경감, 지자체와 함께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체계를 조성한다.

대구교육은 5년 전 우리나라 공교육 최초로 도입한 IB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안착 돼 올해는 IB를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했고 22개의 IB월드스쿨을 보유한 국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관리자와 교직원들이 전문적이고 헌신적이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모든 구성원이 즐겁고 행복한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태용 기자



술 취해 아내와 딸다툼 주택 창고 불 지른 60대

만취 상태로 아내와 딸다툼 끝에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달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 달성군 옥포읍 교황리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을 끄다 인면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북교육청, 2신산업 중심 지역 진로 체험 성료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중심 신산업 특색 진로 체험 활발

경북교육청은 2023년 22개 사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초·중학생에게 ‘신산업 진로 체험’ 활동을 성공리에 지원했다.

‘신산업 진로 체험’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진로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5개 영역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환경·에너지 중심 분야로 진로 체험을 진행, 초·중학생 6,131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히 운영했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 특성과 연계

된 신산업 진로 체험을 운영하는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체험센터도 적극 활용했다.

포항진로체험지원센터는 경북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미래 콘텐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 웹툰, 유튜브 크리에이터, 라이브커머스, 이모티콘 제작 등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 지역 연계 진로 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경주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업의 전문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LG디스커버리랩에서 운영하는 시각 지능, 언어 지능, 로봇 지능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기계 독해(MRC)와 자율주행, SLAM 등 경험 미래 직업인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

고로 미래 융합 산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봉화진로체험지원센터는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 교육, 공존과 상생을 위한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역 자원 활용으로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점을 찾는 신산업 진로 체험과 연계했다.

프로그램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맥락 기반 경험을 구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는 계기로 마련했다.

교육부에서 주최한 2023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지원센터 연수 우수사례로 선발되어 자료집도 전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2024년에도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진로 교육 관련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연계 진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경북교육청, 미리 사전 차단 청렴 문화 확산

‘학교 자율감사’ 절차 10단계→5단계로 축소

경북교육청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자율감사 제도에 학교들의 호응이 매년 낮아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제도는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감사를 하게 해 비리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개선을 하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자율 감사를 시행하는 학교는 3년마다 받는 정기감사가 면제되며 자율감사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개인과 기관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인사상의 이익이 주어진다.

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몇 년간은 매년 30여개 학교가 자율감

사를 희망했으나 지난해는 7개 학교만 희망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자율감사는 감사계획 수립 - 감사반 편성 - 감사항목 선정 - 점검표 재구성 - 1차 점검(업무담당자) - 2차 점검(내부 교차) - 3차 점검(외부 컨설팅) - 추가 조사 - 처분 심의회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에 대한 호응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절차가 10단계에 이를 정도로 많고 서식도 복잡해 차라리 종합감사(3년에 1회)를 받는 게 편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의 개선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가장 먼저 절차를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감사반 편성, 2·3차에 걸친 교차 점검과 외부감사관 컨설팅 단계 등을 전문감사단 상담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감사단은 교

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의 핵심인 감사계획 수립, 1차 자가점검 및 자체 처분 심의회 절차는 그대로 두고 2·3차 점검을 전문감사단이 대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학교에는 지금까지 130만원의 감사운영비를 지원했으나 160만원으로 올렸다. 교육청은 이같은 개선으로 올해부터는 희망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가 오는 2월까지 자율감사를 신청하면 3월에 학교가 선정되고 4월부터는 연수를 거쳐 10월까지 자율감사가 진행된다.

김봉갑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학교 자율감사의 본래 기능인 구성원의 자율 참여와 청렴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경북도, 사전 대비 지진해일 피해 없어

재난문자, 실시간 모니터링 주민 안전에 최선 기울여

홍보를 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24시간 대응체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 예고된 지진해일은 0.3m내로, 지진해일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기준인 지진해일 주의보(0.5~1.0m)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가 여진 발생과 너울성 파도 등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북도내 접수된 지진해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용 기자

영진전문대 성인학습자반 모집

영진전문대는 3일 2024학년도 정기모집에서 학습자 친화형 성인학습자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인생이모자를 준비하는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만학도를 비롯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 바네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스포츠 분야까지 학습자 친화형 플렉시블(flexible) 클래스를 개설했다.

입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체 학기 수업료의 50%를 감면한다.

주중·주말·계절학기·온라인 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 운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생에게 정교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무 중 다친 경찰 ‘간호·간병 통합 병상’ 2배 ↑

통합병상 부족해 자비 부담 발생 경찰병원 병상 44개→88개 확대

경찰청이 공무 중 다친 경찰관을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중증 환자 진료를 지

원하기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병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 지원 상한액이 1일 6만 7140원이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 기준 개선’과 별도

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88병상)으로 확대한다.

지정 병상 확대 시 경찰병원에서 간병까지 포함한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자비 부담 없이 신속한 회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태용 기자

천시열 24대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취임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24대)이 2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조양래 포스코노동조합 부위원장, 이본석 노경협의회 전사근로자대표, 김재열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천시열 신임 포항제철소장은 1991년 포스코에 입사, 광양제철소 도금부, 자동차강판가공부 공장장, 광양제철소 도금부장, 포스코 생산전략실장, 생산기술전략실장, 포항제철소 공정품질담당 부소장을 지냈다.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천시열 신임 포항제철소장은 1991년 포스코에 입사, 광양제철소 도금부, 자동차강판가공부 공장장, 광양제철소 도금부장, 포스코 생산전략실장, 생산기술전략실장, 포항제철소 공정품질담당 부소장을 지냈다.

| | |
|---------------|----------------|
| 코스피 (-62.50p) | 코스닥 (-7.36p) |
| 2,607.31 | 871.57 |
| 엔화 (-4.04p) | 유가 (-1.25p) |
| 919.17 | 1,576.21 |
| 환율 (-3.50원) | 금(金) (-3.70\$) |
| 1,307.50 | 2,069.70 |

대구 작년 하늘길 330만명 여행갔다

작년 인천국제공항 여객 5613만1066명...79% 회복 전국 하늘길 1억3402만명

지난해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국내선과 국제선 포함 1억340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전인 2019년 1억5767만3444명과 비교해 85% 회복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 국내공항에서도 올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수는 1억3401만8087명(국내·국제선 합계)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 2019년 1억5767만3444명과 비교해 85%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별로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5613만1066명, 항공기 운항편수는 33만7300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적은 2019년 7116만9722명과 비교해 79%의 회복률을 보였다. 항공기 운항편수도 2019년 40만4104편과 비교해 83.4%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일본과 동남아 노선 이용객이 회복하면서 올해 인천공항의 매출액은 약 2조1102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3800억 원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공항공사도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7788만7021명으로 집계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50만3722명과 비교해 90% 넘게 회복한 것이다. 항공기 운항편수는 지난해 46만5940편으로 2019년 51만4837편과 비교해 90.5%의 회복률을 보였다. 여객수는 제주공항이 2921만7793명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많았다. 김포 2357만2413명, 김해 1369만4549명, 제주 369만5486명, 대구 330만19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청주공항이 2019년과 비교해 89.2%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K와 티웨이항공의 항공기 운항이 확대된 것이 여객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김포와 김해공항도 각각 73.8%와 65.9% 여객수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30일 김포-가오송 노선 개설과 김해공항에서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국내공항의 완전한 회복은 오는 2025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도 여객이 900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이보다 1년 앞당긴 올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매출액 1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경북 농기원, 복숭아 신품종 선배

스위트하백·미황 보급 확대 2030년까지 7년간 농가보급



경북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 청도복숭아연구소는 3일, 복숭아 신품종 '스위트하백'과 '미황'의 통상실시권을 도내 4개 업체와 충북 2개 중요업체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농기원에 따르면 통상실시를 통한 스위트하백과 미황의 총 판매 예정 수량은 3만4000그루(113ha)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농가에 보급된다. 스위트하백의 통상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중요업체는 경주의 풍진종묘영농조합법인, 경산의 ㈜삼성농원, 김천의 지지농원, 충북 옥천의 그린묘목농원과 충북농원영농조합법인이다. 스위트하백은 2022년 12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됐으며, 성숙기가 8월 상순에서 중순의 중생종 백도 품종으로 과중 380g, 당도 13브릭스 이상이다. 고당도 대과형 품종으로 과즙

이 풍부하며 맛과 향이 우수한 최고품질 품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미황은 2005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인공교배로 육성한 조생종 황도 품종으로 맛과 향이 우수하다. 2020년 통계청 자료 결과 조생종 복숭아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지금까지 16개의 품종(품종보호등록 13개, 품종보호출원 3개)을 육성해 35만8000그루(1195ha)를 농가에 보급했다. 전국 재배 면적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연간 386억 원으로 추정된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복숭아 신품종 육성은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 수입도 늘 것"이라며 "더 경쟁력 있는 복숭아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새해 대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반등

대한주택건설협회 설문 조사 전월대비 '70선' 회복 10.3p ↑

새해들어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반등하며 '70선'을 회복했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월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63.6)보다 10.3p 상승한 73.9를 기록했다. 전월 무너진 70선이 한달만에 회복된 것은 물

론 3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연구원 측은 "대구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지만 모든 전망치가 기준선(100) 이하다. 지방 분양시장의 긍정적 전망보다는 그동안 수도권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전망지수의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의 1월 평균 분양가 전망치는 110으로 전월보다 3.8p,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5.7로 20.2p 각각 상승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들안길 상권 살리자"

스카이브릿지 조성 전격추진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강구

수성구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권 활성화와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들안길과 수성못을 잇는 '스카이브릿지' 건설을 추진한다. 대구 대표 먹거리타운인 들안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체모임이 줄어들고 수성못 상권이 살아나면서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성구가 들안길과 수성못을 연결하는 폭 3m, 길이 150~200m의 스카이브릿지를 만들기 위해 설계 공모에 나선 것이다. 들안길상가변영허 측은 그동안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식품접객업 육의 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켜 들안길상가 측에 힘을 실어줬다. 수성구는 스카이브릿지와 함께 수성못 활성화를 위한 '수상공영장'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못 관광랜드마크 조성 과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 스카이브릿지를 계획하게 됐다"며 "165억원의 국비도 확보해 높은 상향"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단지명 | 소재지 | 주요 입주업종 |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 분양문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임대전용 50만㎡) | 3,604천㎡ / 203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
|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도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 1,295천㎡ / 257천원/㎡ |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
| | 상주 일반산업단지 | 상주시 현신동 일원 |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 238천㎡ / 112천원/㎡ | 상주시청 054-537-7411 |
| | 경산4 일반산업단지 |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 1,066천㎡ / 293천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
| | 고야제2 농공단지 |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 165천㎡ / 284천원/㎡ | 구미시청 054-480-6137 |

다양한 투자가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주낙영, 갑진년 여의주 문 청룡 향해 한껏 비상...

주낙영 시장의 새해 희망

〈3〉

△경제산업 분야

갑진년 서민생활 안정 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주낙영 경주시장이 여의주를 문 청룡을 향해 한껏 비상한다.

주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씬 없이 펼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지역브랜드를 통한 차별화된 상권 조성,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으로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주시도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지역과 상생하는 상권 조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매진한다.

지난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상생협력 자금 융자 지원 등으로 운영 안정을 도모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공영주차장 준공 등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청룡이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 오르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의 기세를 품고 경주의 밝은 미래를 향해 울해 펼쳐지는 서민 경제정책을 살피보자.

■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탄력

경주시는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2026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을 투입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개년 사업기간 중 가장 많은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주차타워 건립과 지난해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에 이어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의 가시적인 결실을 보일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사업은 △거리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상인역량강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거리환경개선은 지난해 빛광장-빛거리(1구간) 및 멋거리 조성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빛거리 2구간과 멋거리를 조성한다.

빛거리(2구간)는 큐브 전광판이 있는 원효로105번길 일원에 조성, 멋거리는 무감당 공유주방에서부터 명동출판이 있는 골목 일대에 맞집안내 디자인 사인물과 골목환경 개선

등이 골자다.

상권활성화는 빈 점포를 대상으로 골목식당 장업을 지원하고 스타점포를 개발, 연중 버스킹 등 거리예술워크를 개최한다.

가을에는 중심상권 청소년페스티벌 등 아트페스타를 개최한다.

골목식당 창업지원과 스타점포 개발 사업에서는 신규창업 지원과 신규스타점포 개발은 물론 지난해 창업·발굴한 12개 창업점포와 10개 스타점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을 고도화 한다.

거리예술워크부터 아트페스타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는 행사 간 연계성을 높이면서 중심상권 내에서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상인역량강화는 협동조합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등 상권 내 상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 자립과 지속성을 담보로 한 사업의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적극 지원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0억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 4% 이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영세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을 꾀한다.

시는 16억 5000만 원을 투입, 소상공인의 이차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 보증 한도는 최대 4000만원 이내이다.

특별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9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억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착한가격 업소지원 △소상공인세 바랍 체인지업 사업(위생시설설비 및 경영환경개선) △지역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 사업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 특성화 시장 육성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노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특성화 시장 육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등 고객유치를 위한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성동시장, 양남·양북시장 등 1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객 편의시설 보강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 등에 올해 2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24억원을 들여 양북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안강·성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중앙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노후전선 정비, 소방·전기 안전점검 등 4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1916년 개설된 외동공설시장이 현대적 시설로 새롭게 탄생했다.

건천시장은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했다. 1923년에 개설된 안강공설시장 옛 채소전도 현대화 사업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 새로운 판로지원 개척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E-커머스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지난해 20회 라이브 커머스 진행 중 총 16회 준비 수량이 완판 돼 동 시간대 3~4000개의 상품이 송출되는 NAVER 쇼핑라이브에서 실시간 시청자수 1~15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E-커머스 사업은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3월 경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원자를 모집해 사업을 이어간다.

황오동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 온라인 진출 환경을 제공하고 온라인 시장 초기 진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참여업체의 특·장점을 살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차별화된 업체 경쟁력도 확보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 경주패시를 발행, 공공배달업 먹거리 서비스도 계속된다.

먹거리 가맹점의 경우 가입비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고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각종 특별 행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프로모션을 상시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윤홍찬기자/사진 경주시제공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포항 울진
청도 칠곡



칠곡군, 예산 31억 절감

칠곡군은 2023년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일상감사는 군정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원가심사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사업비 분석은 물론 공사방법이 적절하지, 합리적인 설계인지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칠곡군은 2022년도에 총 186건(심사요청금액 803억)을 심사해 11억7천만원(절감율 1.46%)을 절감해 경북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절감된 예산은 주요현안 사업비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울진군, 어르신 복지증진

울진군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작년 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 월 7000원을 지원해왔으나, 올해 부터는 지원금액을 늘려 월 1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현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는 관내 등록 가맹점 105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기별 자동으로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돼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과 같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4년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포항, 환동해 중심도시 향해 뚝다... 경쟁력 확보

국가투자예산 1조 4107억 원 확보 초격차 경쟁력 기반 마련

포항시가 역점사업 추진에 가속력을 얻었다. 국가투자예산 1조 4107억 원 확보해 초격차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설계 및 공사비로 올해 국가투자예산 1350억 원을 확보하며, 착공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30.9km)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연결하는 도로로 전체 길이 총 18km에 해상 구간 9km가 포함돼 있다.

포항시는 올해 영일만대교 사업이 턱키 발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

포항시가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사업 예타 통과와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 친환경 에너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포스코와 블루벨리 국가산단을 잇는 배관망 구축에 국가투자예산 4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추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수소 시내버스, 수소 상용차 보급 전환을 위한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75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와 초고속 전



기차 충전소, 부대 시설 등 다용도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포항시가 이를 발판 삼아 신산업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매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의 설계비 및 공사비로 국가투자예산 154억 원과 포항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2차) 타당성 조사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영일만4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설계비와

영일만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비를 각각 2억 원,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영일만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도 국비 26억 원을 투입한다. 포항시는 이렇게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블루벨리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조기변경과 공업용수 적기 공급,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 블루벨리 산단 내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되는 것과 연계해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에 매진한다.

올해 경북형 디지털 혁신거점 지정에 박차를 가

하는 한편 철강, 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의 시·장비 구축비로 국비 28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시는 제조업과 디지털을 융합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이룬 뜻깊은 성과들의 바탕으로 올 한해도 포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포항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칠곡군, 제34대 임휘승 부군수 취임



임 부군수는 울진에서 태어나 1991년 공채로 공직에 입문 울진군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34대 신임 경북 칠곡 부군수로 임휘승(57·사진)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이 부임했다.

임휘승 신임 부군수는 지난 2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총환담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1996년 경도로 전입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실 조직관리담당,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비서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친 후 2022년 7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2013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23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임 부군수는 직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탁월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안목과 추진력이 높아 칠곡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부군수는 "도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칠곡의 부군수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군수의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민선8기 군정 비전과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대구·경북 예비군지역대 창설

육군 50보병사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대구·경북 소 지역의 예비군지역대 창설을 완료했다. 예비군지역대 창설식은 지역별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해 칠곡, 경산, 청도, 문경, 예천 등 5개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사단에 따르면 이번 예비군지역대 창설로 예비군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사시 예비군 자원에 대한 작전지휘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예비전력 관리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해당 창설지역은 기존에는 지역방위대대가 수십 개의 예비군 중대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예비군 지역대가 창설됨으로써 지역방위대대와 예비군 중대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자가 생기게 되어 예비군 임무수행능력과 통합방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경 예비군지역대장으로 취임한 류병익 군무사무관은 "예비군지역대장으로서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현역부대·지자체·예비군 중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여은 기자

음식물 돌린 총선 입후보예정자 · 지지자 고발...경북 첫 사례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음식물 4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고발된 것은 경북에서 처음

이다.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다"며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poohang 포항시

희망특별시 포항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 | | |
|--|--|--|
| <p>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1(철강고도화) ② 일자리 1,000개 창출, 10,000개 양질 일자리 ③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④ 관광 1,000만 관광객 유치 <p>환동해 경제수도 도시</p> | <p>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②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③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p>친환경 생태 도시</p> | <p>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② 체육 집 앞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③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④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p>100세 행복도시</p> |
|--|--|--|

영덕 울릉 청송 영양



윤경희 청송 군수는 4일 동절기를 맞아 지역 내 주요 사업장과 재난취약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도창 영양 군수는 4일 오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영덕국유림영림단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부

영덕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은 3일 영양군에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주경 대표는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기업의 대표로, 수비예향회장 재임 시 김장봉사, 경로잔치 개최 등 지역 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김주경 대표는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따뜻한 새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의회, 갑진년 일절 시작

청송군의회는 2일 총헌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갑진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참배 후에는 청송군의회 본회의실에서 2024갑진년을 맞이해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무식에서는 전입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며, 조직의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원활한 인사를 다짐하였다. 아울러 청송군의회는 2024년도 주요 의정과제로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 새해 언론 간담회... "함께 더 멀리, 희망찬 영양"

오도창 군수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면 영양군의 희망찬 내일에 좌절은 없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일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군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오 군수는 지난해 군의 발전을 위해 영양군이 하나가 되었던 뜻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영양군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군정 주요 성과로는 군민들과 함께 노력해 이룬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을 우선으로 ▲112억 원의 소멸대응기금 확보(A등급) ▲전국 2개 지구 중 1개 지구로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 체계 구축 사업(146억 원) ▲국도 31호선 선형개량사업의 착수비 국비 10억 원 확보 및 조기 착공 확정 ▲영양자작나무숲 명품화 사업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영양군정은 지난해 뒤은 초석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먼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방향 6가지 과제로 설정했다.

핵심 키워드로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 ▲도로망 개선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보건, 복지 정책 확대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석보 화매 논범용화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으로 물 걱정 없는 전천후 배후 재배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 신품종 포도 재배 단지과 연체류 특구 지정 전문 단지, 과실전문 생산 단지를 조성해 체소류 스마트팜을 전면 확대해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강조하면서 농가는



농사에 전념하고 유통은 군이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으로 변화에 중심에 농민을 우선으로 두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영양 진입 구간 터널화와 영양읍 관문도로 4차선 개설사업 등 내부 교통망 개선을 시작으로 안동과 영양, 영덕을 잇는 단선 철도망 구축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영양군의 큰 과제로 남은 '남북 9축 고속도로'는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시군과 공조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간언할 것으로 농가에서 수확한 결실이 뻗어나갈 수 있는 도로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선바위관광지 권역개발과 숨 쉬는 힐링스

파 조성 등 생태관광의 메카, 영양군의 내실을 다지고 바대들 주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의 힘을 싣고 바들양지 경관립 조성, 삼지수변공원 둘레길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영양군의 모습이 다가가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토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으로 교촌치킨 발효공장의 민자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양군만의 매력이 담긴 시장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양읍 시장 통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 만들계획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오늘을 지키는 보건과 복지

정책으로 50세 이상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65세 확대 시행하여 건강 지수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추진해 복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복지시각까지 발굴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 군정 추진으로 올 한 해 희망으로 가득 찬 영양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 신년 사자성어는 '휴수동행(休手同行)'으로 정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면 영양군의 희망찬 내일에 좌절은 없을 것이다"며 "새해에도 영양군민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언론 관계자분들이 지역 발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청송사랑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전인차

2024년 청송사랑화폐 판매 시작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가 오는 4일부터 시중에 유통·판매된다고 밝혔다.

청송사랑화폐는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있다.

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청송사랑화폐'를 총 7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도 발행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10% 상시할인판매로 620억을 유통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수당을 청송사랑화폐로 별도 발행하여 지역 내수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송사랑화폐는 지난해에 이어 2024년도 역시 구매한 주민들에게 할인혜택(할인판매 10%는 620억 소진시까지)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이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지역의 위축된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소비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청송사랑화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속적인 부정유통단속을 통해 청송사랑화폐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정책수당과 일 반할인판매를 별도로 구별하여 발행함으로써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문 기자

울릉군 2024 신년 기자간담회

울릉군은 지난 2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주 재가자들과 신년 맞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민선 지원 특별법'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새해를 맞아 각종 군정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

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론보도 및 여론형성 등 물심양면으로도와준 기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윤환 기자

울릉군 제1호 고액 기부자 탄생

청룡의 해 가장 먼저 새해가 떠오르는 울릉군에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고액기부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울릉도 출향인사로 대구수성구만촌동에서 박언휘종합내과를 운영하는 박언휘 원장이다. 박언휘 원장은 작년 2월에도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기부 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해 변함없는 고향 사랑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22년 '울릉도'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한 것에서도 그의 깊고 따뜻한 고향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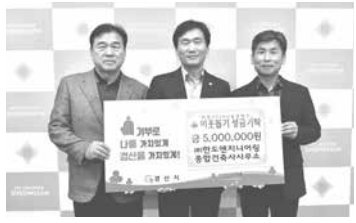
어린 시절 아침마다 눈을 뜨면 보였던 하늘과 맞닿은 한없는 바다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는 출향인사의 향수(鄉愁)를 일품으로 보여준다.

박 원장은 지난 10월 대구에서 지역사랑활동으로서 어르신 3500명 분의 독감 백신을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행보를 펼친 바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고귀한 새해 선물과 같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윤환 기자

Advertisement for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glass and a steering wheel with the text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No! If you've emptied your glass, please vacate the driver's seat.) and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This slogan wa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Jeon Seok-min.)

경산 영천 고령 성주



(주)한도엔지니어링 성금기탁

(주)한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2일 경산시청을 방문 해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작년에 이어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강태중 대표는 “재해를 맞이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해마다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내 주신 온정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영운 기자



재)정암장학회 장학금 기탁

재)정암장학회에서 3일 1억 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정암장학회는 영천 도립동 출신인 故정암 정진태 회장(前 DCM(株)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2000년 7월 11일에 설립됐다.

이공계 대학생, 공고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공부에 열의를 가진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 기술도서 번역, 출간을 통해 학술 진흥을 하고자 도서출판사업, 학습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으로 임고초등학교에 2001년부터 매년 1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암장학회 장학금 출원자 대표로 정연택 회장이 참석했다.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갑진년 힘찬출발 시행

마을주치의 사업 2차년 취약마을 30개리 선정

고령군은 2024년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이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주치의 사업’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한다.

마을주치의 사업은 민선 8기 다함께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실시했다.

2차년도를 맞는 올해 의료취약마을 30개를 새로 선정해 공중보건조사,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한팀으로 구성해 정기적인 마을방문을 통해 기초 검사,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마을주치의 사업은 매년 의료취약마을 30개리를 선정해 총 4차년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군 전체 153개리 중 교통,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120개 마을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양한 보건자원을 활용해 치매인지선별검사, 영역별 보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개별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민 건강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군은 지난 2023년 1차년도 사업시행 후,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와 검토해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해 2024년 2차년도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차년도보다 더욱 촘촘한 건강안전망 구축에 힘을 다할 예정이다.



2023년 1차년도 마을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윤수민 팔산리 한 마을주민은 “거동이 힘들어 병원까지 가기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마을회관에 의사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찾아와 여러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근수 보건소장은 “마을주치의 사업을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은백 기자

영천 제2탄약창 1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남부동 ‘투자선도지구’ 추진 박차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는 68년 만에 영천 제2탄약창 1지역 중 일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6·25전쟁 이후 1956년 영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2탄약창은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대에 걸쳐 있으며,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곳은 금노동, 도동, 작산동, 완산동 일대 79



만 9932㎡(24.2만 평)에 달한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영천시 균형 발전에 큰 저해 요소 작용을 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십 년

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큰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

영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상이행 완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적지에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59만 1000㎡(17.9만 평) 부지에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영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사업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하 기자

성주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군민과 소상공인 상생

총 160억원 2024년에도 지속 시행

성주군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군민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도에도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규모는 총 160억원(지류 50, 카드 110)으로, 오는 5일(금)부터 10% 할인

을 적용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예년과 동일하게 지류형 2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총 7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개인별 보유한도는 150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1412개소로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미용업소, 학원, 약국 등이다.

군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2024년도 국비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지속 시행한다.”며 “성주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군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 갑진년 새해 첫 행보...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제2탄약창 1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지구 조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역직 시책사업인 제2탄약창 1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장 방문해 사업현황 점검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 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십 년간 행사하지 못하고 영천시 균형 발전에 큰 저해 요소였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68년 만에 해제됐다.

해제 지역은 금노동, 도동, 작산동, 완산동 일대 79만 9932㎡(24.2만 평)에 달하며, 군사시

설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적지에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투자선도지구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영천시 신성장 거점지로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Together GyeongSan

기업하기 좋은 경주시

첨단산업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얼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주시가 21세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경주시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예천

정상원 상주시 부시장 "시민만족 행정 최선"



정상원 전 경북도 관광정책과장이 지난 1일 제26대 상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정 부시장은 "강영석 시장과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이끌어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상주의 발전과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정 부시장은 지난 1990년 성주읍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북도의회 및 인재개발정책관실 근무에 이어 전국체전기획담당, 경북도 관광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경북도의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경호 기자

김천 농촌 빈집 정비사업

김천시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택의 노후도, 슬레이트 지붕 여부, 도로 인접 여부, 재산세와 방치기간 등으로 배점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2024년 사업 물량은 60동이다.

또한 2023년까지 1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2024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됐다. 이경호 기자

강영석 상주시장 신년사... 중흥하는 미래상주 구현

중흥하는 미래상주 구현되는 제도약 원년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상주의 밑그림 계획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2024년은 민선 8기 상주시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 해이자, 시대를 주도해 중흥하는 미래상주가 구현되는 제도약 원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소멸의 위기, 경기침체, 국제감소 등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불안한 여건과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상주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먼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의 상주유치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반드시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제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상주의 산업지도를 바꿀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며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기필코 성사시켜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 상주로 도약할 계획이다.

K-스마트농업의 위상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과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을 확산시켜 상주농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추진 중인 농산물 종합 물류단지는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에 대비하고 상주가 유통의 중심

지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인재를 키워 나가기 위해 K-U시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 지역특화비자제도를 이용한 외국 인재의 지역 유입에 매진함과 동시에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총선 이후로 예정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도사활을 걸 계획이다.

도심의 밀도감 있는 기능 위주 재구조화에 꼭 필요한 통합신청사 건립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콤팩트시티 개발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상주지점 개설을 통해 외식산업 문화를 바꾸고 민생경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이 세계적인 버킷리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동되는 만화특화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전국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상주를 찾아오게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왕산주변 정비와 상주읍성 복원, 북원, 남산공원의 체계적 개발 등도 그 실체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상상주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상반기 건설 분야 95% 이상 조기 발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57건 1173억대상, 자체설계로 6억절감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분야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3월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분야 조기발주 발대식을 개최하고 상반기 내 95% 이상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조기발주는 총 357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96건과 자체사업 261건이다.

대상사업은 치수방재사업, 도로사업, 농촌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1173억원에 달한다. 특히 발주사업 중 45%인 161건이 자체설계를 실시해 약 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발주 설계추진단은 도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4개반이 구성되며, 상반기 내 조기발주 95%

이상과 신속 집행 61%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호섭 부시장은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중시하며, 조기발주 발대식을 통해 신속하고 청렴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 새해 충혼탑 참배로 2024년 힘찬 출발

김천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2일 아침 8시 성내동에 있는 충혼탑에서 신년 참배 행사를 통해 시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조원구 보훈단체 연합회장을 비롯한 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헌화, 분향,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미래 100년 김천 건

설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새해 참배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갑진년 새해에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차고 진취적인 시정 추진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 충혼탑은 6·25전쟁 당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김천 관내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1962년 11월 10일 준공했고, 1998년 6월 6일에 충혼탑을 재건했다.

2010년 10월 20일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1797위의 위패를 봉안했다. 이경호 기자

2024 문경시 신년하례회

한국예총 문경지회는 3일 300여명의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2024문경시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북초등학교 김비현 학생, 점촌초등학교 윤윤서 학생의 초청공연과 시립청소년 무용단의 꼭두첫날밤 무용공연을 시작했다.

박희업 한국예총 문경지회장 환영사 및 신현국 문경시장의 주요 내빈 신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가운데 문경시가 또 다른 기적을 향한 힘찬 도약을 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희업 한국예총 문경지회장은 "지난 한 해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경시를 위한 여러 많은 성과를 이뤄내셨다"며 "한국예총 문경지회에서도 시민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문경시의 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문경시의 2024년 시정계획을 제시하면서 "2024년도에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핵심 사업들을 구체화하며 시민분들과 함께 세계 1등, 무한전철 명품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예천, 종합청렴도 '등급' 9년만

예천군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종합 평가해 발표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공직자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청렴체감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면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1등급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10개 시·군뿐이며, 군 단위는 4곳, 특히 경북에서는 예천군이 군 단위로 유일하다. 안병욱 기자

K-배터리의 미래를 충전하다 경상북도 상주

미래산업을 움직이는 이차전지의 중심!
경상북도 상주가 K-배터리 허브 도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충전하겠습니다.

- SK머티리얼즈 그룹포텐 1조 원 투자유치
- SK에코플랜트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위한 MOU 체결
- (주)아바코와 300억 원 투자 MOU 체결

상주시
SANGJU CITY

안동 영주 봉화 의성



박현국 봉화 군수는 4일 오전 군수실에서 열리는 '2024년 가축 전염병 예방 공수의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권기향 안동 시장은 4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전국사과 생산자협회 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을 환영한다.



봉화 선별진료소 검사 종료

봉화군은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선별진료소 업무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일반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해당 환자의 간병인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병의 원으로 문의가 필요하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지정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영주 자동차세 세액공제율 인하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종전 6.41%에서 4.58%로 축소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세액공제율은 올해 4.58%, 2025년 이후는 2.75%로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기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wetax, 지로 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 납부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안동용상시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키운다

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최대 10억원 확보

안동시 용상시장이 특성화시장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용상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공모사업'에서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안동 용상시장은 지난 2022년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결제 편의개선, 가격원산지 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 역량 강화, 안전관리 전략 수행으로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상인주도 사후관리, 성과유지를 통하여 문화관광형 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10억원의 사업비로, 우(4) 시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한우 특화 먹거리 상품 개발, 월영교 및 월영야행등과 연계한 달빛 야시장 조



성, 달을 소재로 한 경관조명 및 포토존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특성화시장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아간관광 명소화 및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시장 내 관광객을 유입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월영교, 호반나들이길과 용상시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오는 명품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겠다"며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시장경쟁력기지지원사업에는 부문시장이 선정되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마케팅, 상인교육을 통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의성군,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교육 분야 우수기관 선정돼 농업인교육 운영능력 우수성 인정



의성군은 자두, 복숭아, 사과 등 지역 주산작목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열린 자두, 복숭아, 사과교육에는 당초 계획인원 1500명 대비 157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군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작목에 대한 농업 위주의 교재 제작,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질적인 작목별 소득 향상 방향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 18회 29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성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금까지 5회를 마쳤다. 2024년 2월 2일까지 13회 140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추진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호응에 놀랐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2023년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인교육 분야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업인교육 운영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도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으로 농업인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갑진년 성공농사를 위한' 농업인실용교육

2360명 대상 12과목 진행... '전문농업인 육성에 주력'

영주시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성공농사를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농업인실용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을 돕고 작목별 전망과 새로운 기술습득으로 농업인의 새해영농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16회에 걸쳐 236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순흥·단상면 행정복지센터,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진행된다.

5일 생강교육을 시작으로 식량작물(벼농사, 콩), 원예(수박, 고추, 생강, 지황), 과수(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농업인 생활법률, 양봉 등 12과목을 운영한다.

올해는 사과, 벼농사 등 주작목과 생강, 지황 등 지역특화작목으로 편성 운영되며 특히 농업인 생

활법률을 추가 개설해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참여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영농에 도움을 해결하고자 6회에 걸쳐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작목별 관심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접수를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목담당 강사와 농촌진흥청 등 외부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기 기자

봉화군,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100마리, 마당개 30마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조절 기대

봉화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 생태계 안정과 소음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실외사육견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100마리이며 신청인 1인당 2마리까지 가능하다.

사업신청인이 길고양이를 포획 후 지정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은 다음 후처리가 끝나고 회복 후 다시 방사시키면 된다.

이때 주인있는 고양이를 동물등록된 고양이, 임신한 길고양이 및 2kg 이하의 길고양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30마리이며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기르는

사업이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100마리이며 신청인 1인당 2마리까지 가능하다.

사업신청인이 길고양이를 포획 후 지정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은 다음 후처리가 끝나고 회복 후 다시 방사시키면 된다.

이때 주인있는 고양이를 동물등록된 고양이, 임신한 길고양이 및 2kg 이하의 길고양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30마리이며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기르는

가구는 1마리까지 가능하며, 사업신청인이 실외사육견을 지정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으면 된다.

또한 중성화 수술에 참여한 가구는 반드시 실외사육견에 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고 동물등록까지 완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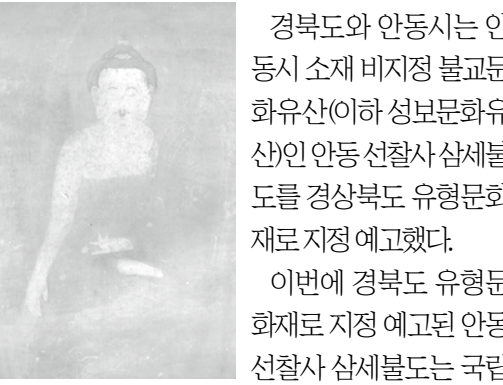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조절되고 있다.

실외사육견은 유실·유기되는 개체수가 줄어들어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불화 화사 집단 사료적 가치 확인



경북도와 안동시는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유산(이하 성보문화유산)인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과학 조사 지원과 더불어 수개월 동안 인문학조사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미가 돌보인다. 과거 조사된 기록을 통해 제작시기와 더불어 당시 불화를 조성하던 화사 집단 활동 사항 연구에 사료적 가치를 확인했다.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安東 仙刹寺 三世佛圖)는 1823년 신겸이 증명을 맡고 학송당 선준이 양공이 되어 함께 제작하였으며, 경북대승사에서 형성되었던 사불산화파의 대표적 화승인 퇴운당 신겸 화풍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한 화면에 삼세불인 석가·약사·아미타불을 두고 지장보살이 조합된 새로운 도상을 갖춘 개성있는 불화로서 신겸의 특징인 파격적인 도상의 전용과 창출이 구현되어 있다.

현재 화기의 박락으로 육안상 판독이 어렵지만, 선형 자료와 경북 지역 불화를 통해 신겸과 선준, 수연의 작품과 일치하며, 여래와 나한인 인물 표현, 정지한 필선, 다양한 기물 선택 등에서 사불산화파

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삼존제의 도상 차용과 검은 바탕에 금선묘를 사용한 점은 조선 후기 드문 사례이다. 여래와 지장보살의 융합을 시도한 새로운 도상이라는 의미와 금선묘 불화라는 희귀성이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교문화가 꽃피우고 불교문화가 나비와 같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곳이다. 과거 안동인들의 삶의 안식처이자 염원을 빌던 불교는 마음을 담은 공양과 시주로 아름다운 불교미술을 조성했고 현재는 신앙의 대상을 넘어 미술사·종교신앙·종교민속·서지학 등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다. 안동시는 비지정 성보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 발굴을 통해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함께 문화재의 다양성 확보에 힘쓰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영주상공회의소, '2024년 신년인사회'

영주상공회의소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해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영주상공회의소는 3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영주지역 주요 인사들이 모여 갑진년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영주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2024년 영주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조관섭 상공회의소 회장, 박남서 영주시장, 박형수 국회의원, 심재현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 인사들이 자리했으며 지역 언론사 대표, 영주상공회의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경제인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상호간 신년하례를 시작으로 신년인사, 축하공연, 신년 축하 및 축배 제의, 상호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영주상공회의소 조관섭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갑진년 새해 영주시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드리다"며, "영주상공회의소가 경북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 시민이 체감하는 획기적인 변화와 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정신으로 올해는 굳은 의지와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갖고 영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Opinion

칼럼

정치인 출판기념회 두고만 볼 것인가

류 동 길

송실대 명예교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열어 관련자나 관련 기관에 로비 또는 보훈 가입을 강요하는 신호를 보내며 노골적인 정치자금 수급에 나서려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지 오래다.

책 출판은 손뼉 치며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서는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사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까지만 허용한다는 규제만 있을 뿐 책값 명목으로 모금하는 돈은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도 없고 수입 내역 공개 의무도 없다.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의 연간 한도액은 국회의원의 경우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가는 책값은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뒷문 열어 놓고 후원금을 얼마든지 받게 하면서 앞문만 단속하는 정치자금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책은 지식의 보고다. 독서는 지식 창출 행위이자 보물을 캐는 작업이고 저자와의 대화다.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고 했다. 바쁜 정치인이 책을 직접 쓴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내용 역시 독자의 평가에 맡길 일이지 여기서 따질 건 아니다.

하지만 모금용 행사 전단이나 다름없이 대부분 폐기 처분되는 책이라면 출판문화의 모독이자 사회적 낭비다.

북콘서트는 저자와 독자가 책에 관한 답론을 주고받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모임으로 이 름만 다를 뿐 출판기념회와 다를 바 없는 출판잔치다.

하지만 그런 출판 잔치가 책에 관한 답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외설과 분노, 적개심이 묻어나고 비루한 말들이 쏟아지는 난장판으로 변할 때가 많은 게 현실이다.

자녀 입시 비리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린 의혹으로 구속된 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해 이런저런 허접한 정치인들이 출판 잔치를 열고 있고 거기에서 온갖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암컷이 설친다”(전 국회의원), “방울 달린 남자들”(성직자), “발목때기를 분질러 뱉어야 했다”(현 국회의원)는 등등의 험한 저질 막말과 욕설이 그런 예다.

하물며 출판에서도 함부로 해선 안 되는 말들이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니 해괴하고 민망한 일이다.

자기를 거리 시시덕거리고 서로 추켜세우는 걸 누가 뭐라 하랴. 그러나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열리는 곳은 엄연히 공공장소다.

출판이 제재 대상일 수는 없다.

정치인이 자기의 철학과 신념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일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책을 출간하고 편법으로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게 문제다.

정치인이 훌륭한 책을 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좋은 책을 저술했다면 일반인들처럼 그냥 서점에서 팔면 된다. 출판기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3선 의원 출신이 언젠가 “책을 낼까 생각해서 글을 써 놓기도 했지만 그런 글을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게 양심상 허락이 안 됐다”고 말했다. 양심적이고 울림이 있는 말이다.

어쨌든 ‘돈 봉투’ 출판기념회는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출판기념회에 대한 비난이 일 때마다 정치권은 “정치자금법을 정비하겠다”거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기막히게 좋은 정치자금 모금창구를 스스로 닫겠다고 할 정치인이 어디 있으랴. 출판기념회를 그대로 둔다면 무엇보다 먼저 정치인 스스로 책값으로 받은 금액을 밝히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공식 후원금 모금행사처럼 통제해야 한다.

금액 한도도 없는 사실상의 정치자금 모금을 조장할 까닭이 없다. 정치자금 투명성 높이기와 돈 안 쓰는 정치를 위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출판기념회 문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론을 일으켜 정치권을 압박해야 답이 나온다.

정치인들에게 맡겨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정치

국힘 탈당' 허은아, 이준석 신당 합류...



허은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신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신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를 이제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은 하나가 돼 민주당에 맞서길 바라실 것”이라며 “그러나 이대로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끝없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 느닷없는 이념 집착, 검사 일색의 인사,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며 “이제 인정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놓고는 “급하게 인터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며 “비겁한 자들에게 국민이 세상을 바꿀 기회를 결코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못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인 정치를 누굴기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신당이 혼신을 다해 지켜야 할 두 글자는 바로 ‘자유’라며 “물산식한 방식으로 서로를 검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이 하나 있어야 한다. 거침없이 자유의 나라를 꿈꾸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동대문을(출마 지역구) 했으면 좋겠지만 당 전략에 따라 움직일 생각”이라며 “당의 존재이유를 더 많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 피습 이재명 추가 테러 예고... 법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3일 피습으로 중환자실에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 추가 테러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극우 유투버의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적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이란 표현과 함께 테러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해 당사자를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 또한 “살인 예고 글 등에 대해 당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피습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을 두고 염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장면이 현재 온라인 공간에 기록되고 있다”며 “이는 가족과 관계자 등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유발하고 있다”며 영상 삭제 등을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며 “당 지도부도 현재 병문안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당적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낱날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병원소식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병원 이 보건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지난해 7월 전국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했다. 9월 초부터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

준 항목에 맞게 현장 확인과 서류 점검이 시행,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포함한 47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최종 지정됐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기준은 기존과는 달리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와 인력 및 시설 등 의료자원 부분이 강화됐다. 국가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도 추가 신설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그동안 각 지표별 최고점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종 결과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게 됐다.

이창형(사진)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써 암,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의료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도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각종 시설 및 장비 등 제반 환경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환자분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2012년 제1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2015년 2기, 2018년 3기, 2021년 4기로 지정된 바 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같이의 가치 NH 농협

영양 들여다보기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삼천과촌이곳에서
하루도 안걸리고...
외씨버섯길 2000+년



물

영양의 자연이
스물다섯에 걸려...
2000년 표정만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2000년 표정만 지켜보라



일

시냇물의 맑은
정겨운 물결이
2000년 표정만



맛

시냇물의 맑은
정겨운 물결이
2000년 표정만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쁨이 깃들다...
2000년 표정만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조신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